

대한상의 브리프

제42호 2017년 11월 27일



편집자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나아갈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컨설팅사·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고, 그 결과를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집’으로 담아 새정부 경제팀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제언집 전문은 코참넷(www.korcham.net)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 이끌 현실적 대안 만듭시다” 전문가 제언

- “변화에 대한 숙제 밀려 있어 ... 이번만큼은 실질적 변화 일으켜야” -

‘혁신과 성장을 이끌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김동연 부총리 등 경제팀 수장과 국회 지도부를 만나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50여 명의 목소리를 담은 제언집을 전달했다. 정부와 국회가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만들고, 경제계가 혁신과 성장을 만드는 일애가고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다.

현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2가지의 공통된 진단을 내렸다. 첫째, “우리가 만들어 낼 변화에 대한 숙제가 많이 밀려있다”는 것, 둘째, “역대 정부가 나름의 방식으로 노력했으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새 정부가 들어선 이번만큼은 반드시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제언집은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는 빅데이터, GPS 등의 활용이 규제에 묶여 안타깝다’,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 산업이 정치적 허물에 막혀있다’,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는 등의 현장 목소리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① 경기하방 리스크 ② 산업의 미래 ③ 고용노동부문 선진화 ④ 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 등 4개 부문으로 정리하고 있다.

경제계의 반성의 목소리도 담겨 있다. 제언집은 “그동안 경제계가 10년 후, 20년 후 미래 성장원을 얘기하기보다는 ‘기업애로가 많으니 해결해 달라’는 기업 연명을 위한 호소만 해온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한다”면서 “성장과 연명의 선택에서 연명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자.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어떠한 방법론도 의미 없다”고 밝혔다.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

- ① 기업현장 “한국경제의 완연한 봄을 기다립니다” ▶ 전문가 “중소기업 역량강화 등 근본해법 마련하자”
- ② 기업현장 “4차산업혁명 기대는 높은데?” ▶ 전문가 “신사업 기회와 자수성가 기업 많이 만들자”
- ③ 기업현장 “대중기 임금격차 지나치지 않은지” ▶ 전문가 “구시대 보호막 걷어내자”
- ④ 기업현장 “사회공공성과 시장자율성 간 저울은?” ▶ 전문가 “기업들, 자발적 변신과 실천 나설 때”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① 경기: “중소기업 역량강화 등 근본해법 필요”

제언집은 먼저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반도체 수요가 켈리 국면이다. 수출 목표치를 더 높였다”는 경기 호조 부문과 함께 “상장사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라는데 우리는 왜 이렇죠?”라는 경기의 그늘진 부분도 비추었다.

실제로 상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장사 영업이익은 2분기에 17.1% 늘었고 3분기에는 45.4%로 더 높아졌다. 하지만 10대 그룹의 영업이익이 83.7% 늘 때 10대 그룹을 제외한 여타 상장사는 -2.2%로 감소하는 등 실적 편중 현상이 심한 상태다.

이에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역대 정부들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참여 정부), 동반성장(이명박 정부), 경제민주화(박근혜 정부) 등 양극화 해소 대책을 폈지만 ‘중소기업 지원’ 자체에만 국한된 채 역량 강화와 기업 성장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3% 성장이 나오려면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② 산업: “신사업 기회와 자수성가 기업 많아져야”

제언집은 산업의 미래에 방점을 뒀다. “빅데이터, GPS가 공공재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4차 산

업혁명의 원유 못 캐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의술, 교육열 최고잖아요? 근데 이런 장점들을 서비스산업 발전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술 있어도 제값 주고 사 줄 곳이 없어요. 다음 라운드(round) 문턱에서 주저앉는 벤처기업이 많습니다” 등 기업의 고민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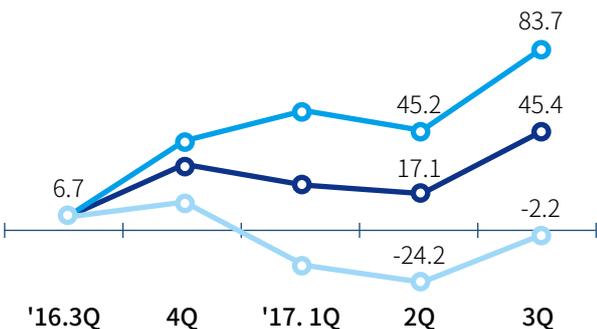
이에 전문가들은 “다수 정책이 높은 기업의 연명을 돕도록 설계되어 있다”면서 “잠재력이 높은 어린 기업이 성장궤도에 들어가도록 정책 구조를 바꾸고 재도전 가능한 사회안전망도 갖출 것”을 조언했다.

실제로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자산 1조 원 이상 기업가(포브스 기준)의 자산축적 방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25.9%만이 자수성가형이고 74.1%가 상속형 기업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78개국 중 최저 수준이며, 전체 평균(69.6%)에도 한참 못 미쳤다. 중국(98%), 영국(93.6%), 일본(81.5%), 미국(71.1%)은 자수성가형 비중이 상속형보다 월등히 높았다.

전문가들은 ‘규제 환경’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세계 100대 사업모델 절반 이상이(57개사) 제대로 꽃피기 힘들거나 시작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맥킨지의 조언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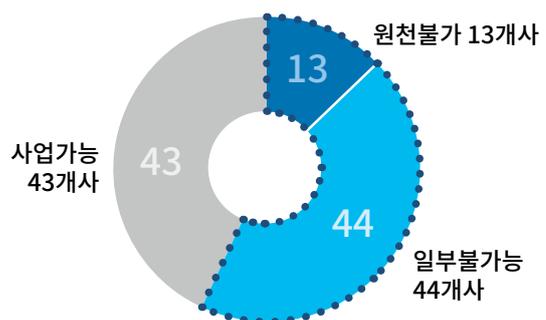
[기업실적(영업이익) 편중화 추이]



※ 자료: 한국거래소



[글로벌 100대 사업모델이 한국에서 사업한다면?]



※ 자료: 맥킨지 등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③ 고용노동부문: “구시대 보호막 걷어내야”

최근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현장 목소리도 담았다. “구조조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미비하다”는 중소기업 이야기, “저임금근로자 배려는 이해하지만 고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수혜는 맞지 않다”는 기업 목소리, “비정규직 꼬리표 떼 희망이 생겼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코멘트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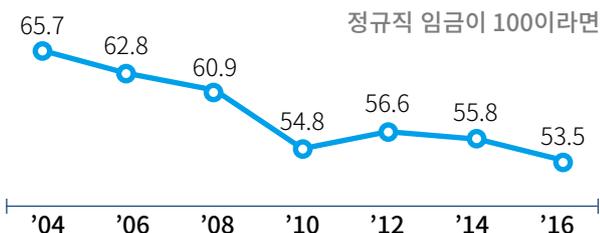
제언집은 우리 노동시장 지표에 대해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우리 연간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평균(1,763시간)보다 306시간 길며, 비정규직 비율은 2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24%로 높은 수준이다.(OECD 평균 17%)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지만 우리는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현상 상태 유지에 급급하다”고 지적하고, “기업이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구시대적인 노동시장 보호막을 걷어내는 일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노동개혁도 가능해진다”면서 “숙련된 고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민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



※ 자료: 고용부

④ 기업 사회공공성: “기업변화 실천해야”

끝으로, 제언집은 “밀려있는 사회부문 속제를 해야 한다는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하지만 정작 내 사업은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는 대기업의 목소리, “과거보다 기업의 몸집이 커졌다. 사회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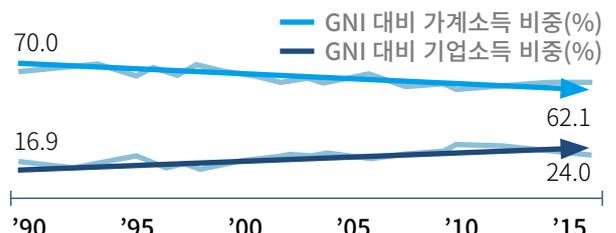
또한 국민들 중 ‘한국기업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하고, 한국기업의 조직 건강도가 글로벌 기업 중 하위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대기업 중심의 포지티브 캠페인을 산업계 전반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도 새로운 법제를 도입해 단기간에 기업의 변화를 끌어내기보다는 선진국처럼 스투어디십 코드 활성화 등 시장 감시와 감독을 통해 순리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시장자율성과 사회공공성을 대립적 관계로 규정하고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면 자율성과 공공성을 모두 잃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기업도 시장경제 질서를 준수하고 공정한 분배를 해왔는지 돌아보면서 기업친화적인 문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언집 전문은 코참넷(www.korcham.net)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국민소득 계정 중 가계·기업비중 변화]



※ 자료: 한국은행

[참고] 제언집을 드리며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드리며

장관님께,

새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계경제의 혼풍이 계속되고, 우리경제에도 구석구석까지
경기회복의 온기가 퍼져 나갔으면 합니다.

경제패러다임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과거를 반성하며, 현재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상공인들은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상호 조응하며
우리 경제가 한걸음 한걸음씩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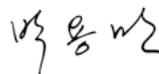
과거 대책을 세웠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한 과제들,
방향은 썼지만 이해관계의 벽에 막혀있는 과제들에 대해
이번만큼은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50여명의 전문가들에게 두루 자문 받았습니다.
그렇게 미래성장에 대한 현장의 문제의식을 전문가의 합리적 시각을
통해 살펴보고 그 결과물을 이 책자에 담았습니다.

이 책자가 새 정부의 경제밈그림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며,
정부가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만들고,
기업이 혁신과 성장을 만드는 일에 경제계도 가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 용 만



국내·외 경제지표

2017년 11월 27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5	2016 ^(E)	IMF		OECD	
			2017 ^(P)	2018 ^(P)	2017 ^(P)	2018 ^(P)
한국	2.8	2.8	3.2	3.0	2.6	2.8
세계	3.4	3.2	3.6	3.7	3.5	3.6
미국	2.9	1.5	2.2	2.3	2.1	2.4
중국	6.9	6.7	6.8	6.5	6.6	6.4
일본	1.1	1.0	1.5	0.7	1.4	1.0
EU	2.0	1.8	2.1	1.9	1.8	1.8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5	2016	'17.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원/달러	1,131	1,161	1,125	1,130	1,134	1,131	1,132	1,132
원/엔	934	1,068	1,003	1,019	1,009	1,030	1,022	1,002
원/위안	180.1	174.4	163.5	166.1	167.5	169.2	172.3	171.1
원/유로	1,255	1,283	1,245	1,269	1,306	1,337	1,348	1,331
유가(Dubai)	32.2	53.8	50.1	46.5	50.4	49.3	55.2	58.3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5	2016	'17.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산업생산	1.9	3.0	2.6	1.7	2.0	2.6	7.4	-
소매판매	4.1	4.3	1.4	1.1	3.5	0.8	8.3	-
설비투자	6.9	-1.3	20.0	18.6	25.1	13.2	25.2	-
수출	-8.0	-5.9	13.1	13.4	19.5	17.3	35.0	7.1
수입	-16.9	-6.9	19.1	19.8	15.5	15.3	21.7	7.4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